

기아, 목포까지 직배송...금타 추가 감산

●화물연대 파업 14일째

광주 평동 출하장·장성 물류센터·임시적치장 등 포화

금호타이어 생산량 70%까지 감축...광양항은 정상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2주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형 사업장의 공장 가동 중단 우려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 광주공장)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지난달 25일부터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옮겼으며 최근에는 광주공장(공군제1전투비행장) 등 임시적치장까지 활용했으나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날 수출 차량을 목포항까지 직접 개별 운송(로드 탁송)하도록 했다.

기아 광주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된 2천여대의 차량은 크게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나뉜다. 보통 100여대의 카캐리어가 스포티지·봉고트럭 등 수출용 차량(1천300여대)을 목포 신항만으로, 내수용은 광주 광산구 평동·전북 신대인·경북 경산 출하장으로 각각 운송한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카캐리어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하루 700여명의 임시 인력을 고용, 광주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 광주공장 등에 완성차를 임시 적치했다.

이날까지 적치한 차량은 모두 1만6천여대로 집계됐다.

기아 관계자는 “목포항으로 직배송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아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250여개 협력업체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직배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이날 감산량을 더 늘렸다.

금호타이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가 늘어나면서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이 지난달 30일부터 하루 생산량을 30% 줄인 데 이어, 이날부터는 7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즉, 하루 30%만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생산량은 광주공장 8천본, 곡성공장 1만본 등 1만8천본으로 평소 6만5천본(광주 3만3천본·곡성 3만2천본)의 32.7% 수준에 불과하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완성차 납품을 위한 OE(신차용 타이어)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는 광주와 곡성 공장 모두 제품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파업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휴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완성 타이어 재고가 쌓이고 확보된 원·부재료가 계속 소진됨에 따라 추가 감산을 결정했다”며 “공장을 비상 운영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날 기아 완성차 적치 공간 부족에 대비해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 명령 요청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요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부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북극한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파업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날 오전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천760TEU로 평상시 물량 3천400TEU를 넘기면서 사실상 정상화됐다. /기수희·여수=김진선기자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한다

백경란 질병청장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조정 검토”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5천명 돌파 ‘초임기’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5천명선에 육박하며 재유행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에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

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 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증·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전남 신규 확진은 광주 2천551명, 전남 2천248명 등 총 4천799명으로 5천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5일엔 광주 2천20명, 전남 2천469명 등 총 4천489명이 감염됐다.

/김재정기자·연합뉴스

나주 동강서 또 고병원성 AI

3주 만에 총 11건 발생...방역 비상

전남에서 불과 3주일 만에 1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나주시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1만2천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지난달 17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3주일 만에 11차 발생이다.

해당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51농가가 301만5천마리(닭 39농가 281만7천마리, 오리 12농가 19만8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나주는 영암과 함께 전남도가 지정한 고병원성 AI 고위험 지역이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2km 내 3농가 3만1천마리를 선제적 살처분하는 한편,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출입 통제·소독을 실시했다. 또 현장지원관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경 10km 방역지역 내 49개 농장과 19개 역학농장, 사조원 계열 농장 33곳에 대한 일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방역 지역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정밀검사 강

화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염축 색출을 위해 오는 18일까지도 내 전체 가금농장 528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온누리에 축복을...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환하게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가 온누리에 사랑·평화·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대형 성탄트리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온 세상에 자비와 은총을 연원하며 '2022 빛고을 성탄문화축제' 일환으로 설치했다. /김애리기자

수소 경제로의 길

전라남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로

응미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Hydrogen car

H2

H2

H2

전라남도

Jeollanamdo